달콤 쌉싸름 '밸런타인' 와인

metro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60〉 초콜릿과 와인의 마리아주

밸런타인데이의 시작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결혼할 수 있었던 시대. 밸런타인(Valentine)은 서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황제의 허락없이 결혼을 시켜준 죄로 순교한 사제의 이름이다. 죽음을 당한 날이 바로 2월 14일이다. 사랑을 지켜주려다 순교한 날은 연인들의 축일이 됐고, 마음에만 담고 있었던 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허락됐다.

초콜릿 만으론 고백의 성공을 장담하긴 어렵다. 부족한 2%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초콜릿의 맛과 향, 분위기까지 배가시켜줄 와인이다. 초콜릿은 맛의 개성이 강하다. 와인을 자칫 잘못 골랐다가는 서로의 향을 죽이고, 쓴 맛만 남을 수도 있다.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이라면 포트와인이 정답이다.

포트와인은 와인을 발효하는 중간에 브랜디를 첨가해 알코올 도수를 높인 주정강화와인이다. 알콜함량이 높은 브랜디를 넣으면 효모가 죽으면서 발효를 멈추고, 결과적으로는 잔류 당분이 높아진다. 단맛이 강하고, 숙성을 통해 부드러워진 포트와인은 식후 디저트용으로 아주 좋다.

특히 '다우 너바나 리저브 포트'는 다크 초콜릿을 위해 태어났다.

다우의 와인양조 팀은 초콜릿과 가장 잘 맞는 포트와인을 만들기 위해 초콜릿으로 유명한 벨기에의 '플랑드르 테이스트 파운데이션(The Flanders Taste Foundation)'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포트와인과 다크 초콜릿의 공통적인 풍미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꽃향기와 부드러운 탄닌감, 구조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와인을 만들었고, 이 와인이 바로 다우 너바나 리저브 포트다.

(왼쪽부터)다우 너바나 리저브 포트, 폴 자불레 뮈스까 봄 드 브니즈, 프리츠 짐머 리슬링 아우스레제, 샴페인 앙리오 브뤼 로제. /나라셀라

흑장미, 바이올렛 등의 향기와 함께 달콤하지만 우아한 맛이다. 모든 초콜릿과 잘 어울리지만 특히 카카오 함량 60% 이상의 다크 초콜릿과 가장 이상적이다.

주정강화와인이라 알콜도수는 20도로 높은 편이다. 대신 일반 와인과 달리 세워 보관해도 되며, 오픈한 후에도 최장 한달 까지 보관이 가능해 조금씩 디저트와 즐길 수 있다.

진한 포트와인이 부담스럽다면 프랑스의 '뱅 두 나뚜렐(Vin Doux Naturel·Natural Sweet Wine)이다. VDN은 당분 함량이 높은 포도 주스를 발효시키는 중간에 고순도의 중성 알코올을 넣어 만든다. 포트와인과 같이 발효가 멈추면서 당분함량이 많지만 알콜도수가 약 15도 안팎으로 낮고, 과실향이 신선하다.

'폴 자불레 뮈스까 봄 드 브니즈'는 프랑스의 대표적 VDN으로 향이 좋은 품종인 뮈스카 100%로 만든다. 잘 익은 복숭아와 모과 향이 잘 어우러지고, 신선한 열대 과일 향이 은은하다. 처음에는 천연당분이 부드럽고도 풍부한 볼륨감을 주다가 깔끔한 산도로 마무리 되다. 초콜릿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 와인이다.

밀크초콜릿이나 화이트초콜릿이라면 과실향이 풍부한 와인이 제격이다.

독일 모젤 와인인 '프리츠 짐머 리슬링 아우스레제'는 리슬링 품종으로 만들었다. 잘 익은 과실만을 골라 만들어 다른 와인보다도 리슬링의 달콤함을 잘 간직하고 있다. 잘 익은 과일의 감미로운 당도와 자연산도를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한 향이 복합적이다.

'샴페인 앙리오 브뤼 로제'는 레드와인 품종인 피노누아를 섞어 연한 분홍빛을 띠고, 섬세한 기포가 끊임없이 피어 오른다. 딸기 등 붉은 과실의 향과 신선한 자몽과 귤의 풍미도 어우러지는가 싶더니 설탕에 졸인 과일향으로 마무리된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NARA CELLAR

AI, 문화·예술 분야 급속확산
어린이독서 활용로봇 등 지원

문체부, AI시대 세미나

문화체육관광부가 4차 산업혁명의 사회·문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혁신랩'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전시 안내, 어린이 독서활용 로봇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에서 AI 및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이 주최한 'AI시대, 문화체육관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국회 토론회에서 문체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수립을 추진 중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과제안'을 소개했다. 또 추후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계와 구분 '인간의 창의성' 정의
생활SOC 활용 국민 AI 교육 진행
예술·기술 등 융합 프로젝트 지원
"놀이·창작 활동 크게 늘어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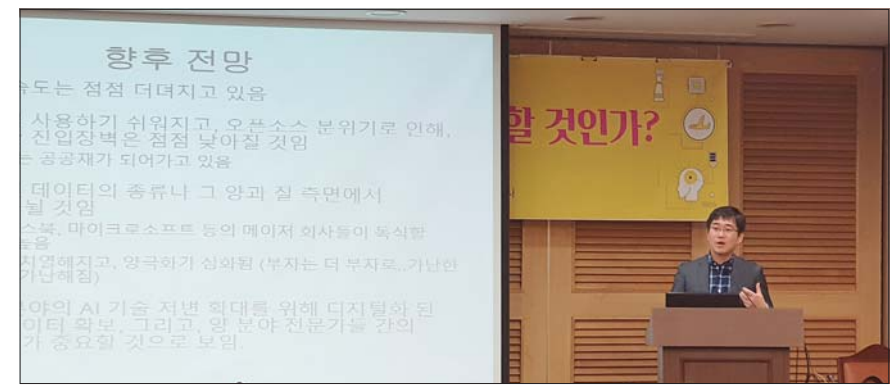
이 과제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미래 대응 인재 양성 및 문화서비스 혁신'을 위해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의 창의성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활용해 국민 AI 교육을 진행하고,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예술·기술 융합 프로젝트'를 지원해 새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술에 대한 문화영향을 평가하고, 문화와 기술 전문가 포럼 및 전문 연구, 조사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2200년 정도에는 AI와 로봇 등으로 인한 자동화로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되고 그 시간을 문화·체육·관광에 집중할 것"이라며 "놀이와 창작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재걸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전망' 발표를 통해 "딥러닝은 영상인식 분야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바둑 등 게임 AI, 의료 분야에서 질병 진단, 법률에서 판결 예측, 주식예측 및 자산관리 등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얼굴인식 AI에서 기계학습으로는 많은 데이터를 써도 85% 성능을 내는 수준이었는데, 딥러닝과 만나면서 90~95%까지 성능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의료 분야에서 100명의 환자 데이터를 수집해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정보를 주고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사는지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했다"며 "AI 물체인식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AI가 사진을 보고 설명을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스타일 트랜스퍼' 기술로 이미지를 AI가 스타일을 반영해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린 아이'라는 단어를 주고 이미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럴 듯한 이미지를 생성해주기도 한다"며 "'I LOVE YOU' 등 긍정적인 문장에는 밝은 색상을, 부정적인 내용은 어두운 색깔로 표현해준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주재걸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가 13일 'AI시대, 문화체육관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전망' 발표를 하고 있다.

메이크업샵 '스마일페이' 결제 오픈

결제금액 5% 적립 등 혜택 다양

대한민국 온라인 유통기업 1위 이베이코리아의 간편결제 '스마일페이'가 코리아센터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에 결제 서비스를 열었다.

'메이크샵'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국내외 쇼핑몰 구축과 운영, 배송, 오픈마켓 연동 및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구축플랫폼이다. 스마일페이는 앞서 종합 전자상거래 솔루션사인 '카페24', '아임포트' 등과 제휴를 체결해왔으며, 메이크샵에서도 서비스를 오픈하며 입지를 다지게 됐다. 이번 제휴로 메이크샵을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은 고객들에게 스마일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객들은 스마일페이에 신용, 체크카드를 최초 1회 등록하면 별도의 인증서 설치 없이 6자리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 가능하다.

또한, 메이크샵을 이용하는 쇼핑몰들이 스마일페이를 도입하고, 쇼핑몰 고객이 스마일페이로 결제할 경우 다양한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스마일페이로 결제하는 모든 결제 금액의 0.5%(최대 5천원)를 적립해주며, 이베이코리아의 상업자표시 신용카드(PLCC)인 '스마일카드'를 스마일페이에 등록하고 결제하면 전월실적, 적립한도 제한 없이 2%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이크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베이코리아 목승원 스마일페이사업실장은 "스마일페이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이베이코리아의 마케팅 및 고객 유입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매출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쿠팡, 로켓와우 회원 대상 로켓프레시 사전예약 판매

로켓와우 고객이라면 이제 '로켓프레시 사전예약 서비스'로 주말 메뉴 걱정을 덜 수 있다. 쿠팡은 산지의 신선함을 고객의 식탁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로켓프레시 신선식품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로켓프레시 사전예약 서비스'는 로켓와우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주중에 쿠팡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으로 제품을 구매하면, 정해진 주말 오전 7시 전까지 주문한 상품을 빠르고 안전하게 받아 볼 수 있다.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상품이 로켓프레시 사전예약 판매 대상이다. 킹크랩, 전복과 같은 싱싱한 수산물부터 제철과일, 인삼, 자연산 송이버섯, 한정수량 대용량 식품 등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들을 사전예약으로 매주 주말 새벽에 받아 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배달의민족, 배달 앱 최초 'AI 배차' 도입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국내 배달앱 최초로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을 도입한다.

우아한형제들은 1년 6개월의 개발 과정을 마치고 오는 27일 서울 송파·강동 지역부터 'AI추천배차'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I추천배차는 인공지능이 배달원 동선, 주문 음식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임자인 라이더·커넥터를 자동으로 배정해주는 게 특징이다. 배달원의 운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현재 나의 동선에서 가장 적합한 다음 콜'을 자동으로 배차해 주기 때문이다.

그간 라이더·커넥터들은 운전하면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시간으로 계속 뜨는 배달 콜에 먼저 '수락' 버튼을 눌러야 다음 일거리를 확보하기 용이했기 때문이다. 실제 라이더 사고 사례 중에 전방주시 미흡이 전체 사고의 12%를 차지했다. AI추천배차가 도입되면 운행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콜 처리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AI추천배차는 예를 들어 동선상 두건의 콜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경우 '픽업→배달→픽업→배달'이 좋을지, '픽업→픽업→배달→배달'이 더 효율적일지까지 파악해 동선을 추천해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